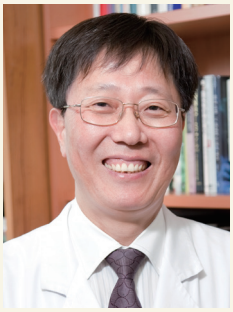
의사 파킨슨의 생애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제임스 파킨슨은 1755년 런던에서 약사와 외과 의사를 겸하던 개업의사 존 파킨슨의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영국의 외과를 과학으로 만든 인물로 존경받는 존 헌터의 제자이기도 한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1784년 런던의 런던병원의학교를 졸업하고 외과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가업을 계승했다.

대를 이은 성공적인 병원 경영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파킨슨은 다양한 방면에 흥미를 가진 의사 겸 과학자이자 사회개혁가로 성장했다. 젊은 시절의 파킨슨은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도 동시대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고, 프랑스에서 진행되던 민중혁명을 강력히 지지했다.

각종 혁명적, 사회적 모임에 참가하던 그는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영국에 휘몰아치던 혼란기에 자신의 이름, 혹은 '늙은 휴버트'라는 필명으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20여 종에 가까운 인쇄물을 발간한 정치 선동가이기도 했다. 그는 몇몇 정치적 비밀결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1794년에는 조지 3세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다.

파킨슨이 그의 요란한 정치 경력을 뒤로 하고 본업으로 돌아온 시기는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프랑스 혁명의 혼란이 가라앉은 이후였다. 의학 연구로 관심을 되돌린 그는 1805년에 통풍에 관한 저술을, 1812년에는 영국 최초로 충수의 염증성 천공이 사망의 원인이 된 사례를 발표하여 의학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유명하게 만든 업적은 1817년에 출판한 〈진전(떨림)마비에 대한 소론(An Essay on the Shaking Palsy)〉이었다.

후일의 파킨슨병을 처음으로 보고한 이 작은 논문에서 그는 6명의 증례를 소개하고 있다. 첫 증례는 개인적으로 관찰한 50대 환자, 둘째와 셋째 증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환자들, 네 번째는 한 번 본 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던 가슴에 농양(고름주머니)이 있던 어떤 환자, 다섯 번째는 그냥 멀리서 바라본 환자, 여섯 번째 증례는 72세 남성 환자였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파킨슨의 이 저술은 의학논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의 문건이었다. 모든 증례가 저자의 눈으로 관찰한 것일 뿐이고, 아무런 신체검사 혹은 병리학적 소견도 없었으며, 일정한 과학적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더구나 파킨슨은 이런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인 떨림이 목 부위의 척추신경 장애 때문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의학계는 이 문헌을 최초의 독창적 보고로 높게 평가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후배 의사들이 점점 더 세밀한 관찰을 첨가함으로써 '진전마비'는 하나의 질병으로 확립되었다. 60년 후에는 세계적인 신경학의 권위자 장 마르탕 샤르코가 이 질환을 '파킨슨병'이라고 명명함으로써 파킨슨이란 이름은 의학 역사의 일부가 됐다.

파킨슨은 의학 이외에 고생물학에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화석 표본을 수집하는 한편 화석에 관한 훌륭한 저술들을 남겼으며, 런던지리학회 창립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을 만큼 지질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1824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한 그의 생일인 4월 11일은 '세계 파킨슨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